

# 인천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8월 첫삽

### 186억 들여 신문리 일원 지하1층~지상4층 조성

#### 요리실·목공실·영상제작실·동아리실 등 들어서

인천 강화군이 강화읍 신문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올해 8월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

은 현재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로 이전하고, 일대를 청소년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여가·학습 활동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시설 간 연계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강화군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은 총빌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모일 공간이 마련되며, 1층에는 관리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2층에는 요리실과 목공실 등 제

합형 프로그램실, 3층에는 영상제작실과 동아리실, 4층에는 연극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2025년 12월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선정했으며, 같은 달 실시될 예정에 착수했다.

현재 실시계획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문진식 기자 mcs@sininbo.co.kr

#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본격 가동

### 치료실·상담실 등 갖추고 전문인력 14명 배치

#### 가족기능 회복등 확대 아동 통합지원 서비스

서울 관악구는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난곡로58길 15)'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쉼터 연계와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국·시비 등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료실과 상담실, 교

육실 등을 갖춘 기관을 조성하고 상담원과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14명을 배치했다.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기반으로 상담·치료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 등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한 구는 한 달간 임시 운영을 거쳐 시설 점검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최적화를 완료했다. 그간 지역에 아동보호 인프라 부재로 인한 자차구의 기관을 이용

해 온 만큼, 이번 개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는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위탁 운영을 맡겨 피해 아동 심리치료와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관은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과 함께 학대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 Safety-Net'을 실현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진식 기자 mmh@sininbo.co.kr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미래교육·직업교육 파트너십 구축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등 맞춘

#### 학생간 공동연구과제 추진도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Lower Silesia) 대표단을 만나 양국 기관의 미래 교육과 직업교육 분야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본격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1월 돌노실롱스키에주 측에서 경기도교육

청과 국제교류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도교육청의 경기미래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교육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경기미래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 성과 공유 ▲한국 음식(K-Food) 등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협력 ▲교원 및 학생 교류를 위한 중앙

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일회성 교류를 넘어 양 기관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로드맵)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 간 공동 국제 연구과제 추진 ▲산학 현장 연계 학습(인턴십) 지원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해정 정책기획관은 "정책 교류를 통해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원과 학생이 미래교육의 세계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종민 기자 lim@sininbo.co.kr

## 불암산서 줌라인·서바이벌 게임 '숲 체험'

### 노인권, 청소년 전용 '더불어숲 체험장' 큰 인기

#### 작년 총 9027명 이용... 신체활동형 콘텐츠 호평

서울 노인구의 청소년 전용 숲 체험 공간인 '불암산 더불어숲 체험장'이 다양한 산림 체험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대표 체험학습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숲 체험장은 불암산 도시 자연공원(불암산 스포츠타운 맞은편)에 위치한 산림 체험 시설로, 2017년 7월 문을 열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55m 규모의 줌라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신체활동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청소년 현장 체험학습 공간으

로 활용돼 왔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시설은 줌라인 형태의 '줄라이프'를 비롯해 암록 속에서 탈출을 체험하는 '암록미로', 레이저 기반의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지상 7m 높이와 대형 그물 구조물인 '네트플레이' 등이다.

특히 네트플레이는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시설로, 숲속 공간에서 뛰고 오르며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바이벌 게임 역시 기존 페인트볼 방식에서 레이저 태그 방식으로 전환되며 안

전성과 체험 몰입도를 높였다.

이용객 통계에서도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더불어숲 체험장 이용 인원은 총 9027명으로, 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8119명이 청소년 이용객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산림 체험 시설이 가족 단위 이용 중심인 것과 달리, 신체활동형 체험 콘텐츠를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가 활발한 구조다.

운영 방식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 20인 이상 단체 예약 중심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개인과 가족 단위 예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ninbo.co.kr

## 생성형 AI 활용 '맞춤형 영양관리'

### 강북구, 내일 대면교육

#### 14일간 온라인 챌린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대면교육을 예약 및 관리를 위해 ChatPT, 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민들에게 보다 쉽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 관외와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참여자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순환 플랫폼(스마트밴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을 선별 대면교육 '오늘건강' 앱과 연동해 건강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문진식 기자 mmh@sininbo.co.kr

맞춤형 식단 정보와 영양관리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강북구보건소 대사중후군 검진사업에 참가한 20세 이상 강북구민 또는 강북구 소재 직장인과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대면교육과 비대면 챌린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면교육은 14일 오후 3~7시 강북구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 이후에는 14일간 온라인 기반 개별 식단관리 챌린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AI 기반 건강관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진식 기자 mmh@sininbo.co.kr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강좌 개설

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환경·주거 분야 생활밀착 강좌를 위한 '2026년 1기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좌는 ▲슬기로운 자원순환 교실 ▲천재부러는 개인과 가족 단위, 총 2개 과정으로 백야 화사당에서 진행된다.

먼저 '슬기로운 자원순환 교실'은 오는 27~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생활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실천법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통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회용품을 사용용 줄이기'는 메시지를 다양으로, 쓰레기 감량과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민정호 기자 mjh@sininbo.co.kr

## 광진구, 화양어린이공원 새단장... 열린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서울 광진구는 최근 화양동에 위치한 화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고 소담하게 쉴 수 있는 열린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갖춰졌던 연면적 2천여㎡의 특성을 살려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으며, 건대 상가변영외화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구는 공원 중앙부를 넓은 잔디 열린공간으로 조성해 자유롭게 앉

고 쉬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늘막과 원형 테이블, 벤치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원터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원 안구의 너트나무 그늘 아래에는 계절별 초화류 식재한 '열린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주민들은 도심 속 작은 정원에서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무지개빛 하트 조형물은 방문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놀이·운동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트램폴린과 흔들놀이기구를 설치했으며, 공원 주변에는 운동기구용 배치를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원복지과 공원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영준 기자 yyj@sininbo.co.kr

## AI·IoT 활용 노인 건강관리

### 성북구, 참여자 600명 모집

서울 성북구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참여자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순환 플랫폼(스마트밴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을 선별 대면교육 '오늘건강' 앱과 연동해 건강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문진식 기자 mmh@sininbo.co.kr

## 간추린 뉴스

###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학습 지원 기능 강화

경북 구미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문해력과 영어교육 지원에 나선다. 방과 후 돌봄에 더해 학습 지원 기능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내 39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13명을 대상으로 '초등생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과 '초등생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방문학습 전문업체에 위탁해 추진되며, 각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여건과 아동 수요에 따라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초등생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1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8명이 참여하며, '초등생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2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43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에는 대하초등학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안전교육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기자재를 활용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안승오양석 기자 ows@sininbo.co.kr

### 성남시, 11월까지 초교 찾아가는 안전체험캠프 운영

경기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7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72개 초등학교에서 약 1만2461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6~7일 양일간 위례푸른초등학교(245동)와 성남남일초등학교(57동)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12~13일 관교대정초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구마=박성진 기자 pbs@sininbo.co.kr



### 어버니날 점심 나눔 행사

서울 금천구 시흥4동 한울결로마을이 어버니일을 맞아 지역의 홀로노인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울결로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홀로노인 20여명이 참석해 정담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자선단체 노인돌봄사업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이날에는 대하초등학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안전교육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기자재를 활용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안승오양석 기자 ows@sininbo.co.kr

### 용산구, '학교 찾아가는 신나는 음악여행' 확대

서울 용산구가 '학교 찾아가는 신나는 음악여행' 참여 학교를 17개로 확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예술전문단체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1995년 창단한 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클래식 공연문화 보급과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그램은 ▲악기 소개 ▲작곡가 및 연주 기법 소개 ▲취미 배우기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기 ▲발레마임 배우기 등 연령별 맞춤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연주 체험 프로그램도 미연해 학생들이 직접 지휘하고 연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현악·목관 앙상블에 더해 금관 앙상블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했다. 참여 학교 수도 2024년 7개에서 2025년 11개로, 올해 17개교로 확대됐다.

또한 참여 학교는 초등학생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7개교다.

문진식 기자 mmh@sininbo.co.kr

###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청라 청소년 자선기 후원

인천 서구 청라 2·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900만 원 상당의 자선기 2대(보호장구 포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청라 2동 방로 87가길 총 24가구에 자선기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법정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1년부터 매년 청라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선기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

### 강서구, 미취업청년 자력증 응시로 10만원 지원

서울 강서구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자력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며,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결혼 및 자차제의 동일·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와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임시한 자력증에 대해 최대 5개만 지원 없이 심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범위에서 여러 시험의 응시료를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토익(TOEIC), 토플(TOEFL), 오픈(OPEN) 등 어학 시험을 비롯해 국가직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다.

다만 사설 시험수당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나 자력증 접수 후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소진 기자 zini@sininbo.co.kr